

광기와 잠 : *The Dunciad*에 있어서의 우둔의 속성에 관한 한 고찰*

송 낙 현

대개의 영문학사나 교과서에 의하면 18세기는 고전주의, 또는 신고전주의 시대로서, 이 시대의 문학은 decorum을 존중하여 기괴하거나 무리하게 과장된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온건한 표현을 선호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대표적 문인들의 주요 작품에 담긴 사상은 이 시대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Alexander Pope는 *Essay on Criticism*, *Essay on Man* 등에서 과도한 상상력의 억제와 양식과 중용을 권고함으로써 신고전주의적 문학과 인간의 이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The Dunciad*와 같은 작품의 존재는 하나의 수수께끼가 될 것이다. 이 작품의 극단적으로 과장된 이미지와 터무니없는 환상의 세계는 신고전주의적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Pope가 이 작품을 쓸 때는 그 전과는 사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명백하게 보이는 답은, 이같은 작품은 풍자라는 것이다. 즉 풍자는 그 공격의 대상인 인간들의 추잡함과 어리석음을 과장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반대적 자질, 즉 덕망과 양식을 강조하는 효과를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주의적 시인이라 할지라도 풍자시에 있어서는 마음껏 황당무계하게 더럽고 기괴한 현상을 만들어 낼 시적 특권(poetic license)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Mac Flecknoe*, *Gulliver's Travels*, *The Dunciad*와 같은 작품에 나타난 불합리하고 기괴한 모양을 가지고 18세기가 이성(理性)의 시대(時代)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크(baroque)의 시대라고 주장한다면¹⁾, 그것은 그림자를 보고 실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그림자라 할지라도 실물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림자는 실물의 일부, 또는 일면인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바로크가 18세기적 고전주의의 일면, 또는 일부일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시대에는 고전주의적 경향과 바로크적 경향이 공존했었고, 다만 전자가 후자보다 더 현저했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지 모른다. 사실은 그 어느 시대라도 그 문학적 취향에는 여러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데, 다만 그 중의 한 요소가 만 것보다 우세를 누리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문학이라는 것을 여러 오리로 엮어진 밧줄로 다음처럼 비유한 사람도 있다.

Literature can be likened to a strong rope which, at any point, will reveal to the static onlooker but one strand squarely, others fading, and yet others appearing. At each point of time, one vein

* 이 논문은 1987년도 문교부(교류교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1)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 예는 Donald Greene이다. 그의 *The Age of Exuberance: Background to Eighteenth-Century English Literature*(New York: Random House, 1970), pp. v-vii. 참조.

will stand out, one movement overshadow the others. Optimism or pessimism, progress or reaction, extravagance or control; social or personal, baroque or realistic, romantic or classical.²⁾

여기에 열거된 여러 문학적 경향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 속의 여러 취향이 문학에 반영된 것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여러 취향이, 그것도 서로 이율배반적인 여러 취향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취향들은 전통적, 기존가치 유지적인 것과 이와 반대로 탈기성가치적, 또는 개혁적인 두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을 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단순화가 될 지 모르나 보수주의적 경향과 진보주의적 취향이 마음 속에서 대립하면서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경향이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바로크와 사실주의, 진보와 반동, 개성과 사회성, 방종과 절제 등의 대조적 경향으로 문학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취향의 우열은 한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고정되지 않고 시간과 연령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한 사회와 시대 전체적으로도 늘 변동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생명체, 또는 생명력이므로 모든 살아있는 것과 같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 마음의 집합체인 한 사회나 시대 정신도 마찬가지로 늘 유동적이다. Samuel Johnson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오래 오래 즐겁게 해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 사회의 문학적 취향이 두 대조적 경향 사이를 시계추처럼 기계적으로 왕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8세기적 고전주의는 후기 르네상스 문학의 복잡하고 모호함과 대담한 과장성에 대한 반동으로서, 단순·명료함, 절제와 규칙성, 이성과 양식을 선호하는 취향이라 볼 수 있고, 19세기의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에 반발하여, 절제와 규율보다는 자유분방한 상상과 상식적 현실의 초월을 구가하는 정신이며, 20세기의 모더니즘은 또 낭만주의적 무절제와 방종에 대한 반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그것의 대표적인 경향과 동시에 그와 대립적인 취향이 존재하는 것이며, 바로 이 원리가 신고전주의 시대에 *The Dunciad*와 같은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우자들(dunces)을 풍자하기 위하여 그들의 어리석음과 더러움을 과장하는 데에서 그 불합리하고 기괴한 모양이 유쾌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Pope 자신이 그러한 모양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일 지 모른다. 황당무계한 환상에 대한 Pope의 기호는 일찌기 *The Rape of the Lock*에 나타나 있다. *The Rape*의 환상은 장식적이고 예쁜 것에 비하여 *The Dunciad*의 그것은 기괴하고 더러운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Pope는 그 더러움을 험껏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 즐거움은 규율과 절제에 지친 문학이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도피하여 얻는 자유의 즐거움일 것이다. Sutherland도 이같이 지적하고 있다.

In such grotesqueries polite society is escaping from its own negative perfections. Correctness has become a burden, restraint has become intolerable; and the eighteenth-century poet, like a schoolboy breaking away from his desk at the end of the hour, covers himself happily with mud in the playingfield.³⁾

2) Dominique Secretan, *Classicism*(London: Methuen & Co., 1973), p. 47.

3) James Sutherland, *A Preface to Eighteenth Century Poetry*(London, Oxford Univ. Press, 1963), p. 158. Wimsat, Jr. & Brooks도 *Literary Criticism: A Short History*(New York: Alfred A Knopf, 1969), p. 217에서 18세기의 burlesque에 대하여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Sutherland는 여기서 의사영웅체(mock-heroic)를 사용한 풍자시, 특히 *The Dunciad*, 제 2권의 더러운 경기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시인이 자기자신에게 진흙을 퍼붓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풍자시인은 적어도 의식적으로는 자신이 아니라 풍자의 대상에게 진흙을 뒤집어 써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즐기고 있다면, 시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진흙을 칠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Erskine-Hill이 지적했듯이 Pope는 *The Dunciad*에 전개되는 추하고 불합리한 세계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혐오와 멸시로 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묘한 매력을 느낀다는, 2중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⁴⁾ Erskine-Hill은 그 좋은 예로 다음 귀절을 들고 있다.

(우선 그는 이렇게 보고한다, 즉 턱까지 빠졌을 때
진흙의 요정들이 그의 용모에 반해서 빨아 들였다.
숨털보다 더 부드러운 젊은 Lutetia양과
검은 미녀 Nigrina양, 그리고 갈색의 Merdamante양이
바닥의 흑옥 정자에서 그의 사랑 얻으려 겨루었으니,
옛적에 아름다운 Hylas가 물속에 끌려간 것 같았다.)

First he relates, how sinking to the chin,
Smit with his mien, the Mud-nymphs suck'd him in:
How young Lutetia, softer than the down,
Nigrina black, and Merdamante brown,
Vy'd for his love in jetty bow'rs below,
As Hylas fair was ravish'd long ago.⁵⁾

죽은 개와 온갖 오물이 떠내려 가는 더러운 Fleet-ditch의 시궁창에 벌거벗고 제일 깊이 빠지기 경쟁을 한다는 이 극도로 황당무계하고 추악한 장면에도 일종의 아름다움이 가미되어 있다. 또한 우둔한 머리가 그려내는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정경도 이상한 아름다움을 띠고 있다.

(이곳에서는 명랑한 묘사가 이집트를 소낙비로 기쁘게 해주고,
혹은 Zembla에는 열매 맺게하고 Barca에는 꽃피게 한다.
여기에는 흰 언덕이 얼음으로 빛나는가 하던
저기서는 상륙으로 색칠한 계곡이 보인다.
추운 12월에 향기로운 꽃이 피고
쌍인 눈 아래 무겁게 익은 이삭이 꼬덕거린다.)

Here gay Description AEgypt glads with show'rs,
Or gives to Zembla fruits, to Barca flow'rs:

It may have been play—the elevated person putting on the mask for the visit to the bazaar of ordinary life—but it was crafty and potent play.

- 4) H.H. Erskine-Hill, "The 'New World' of Pope's *Dunciad*," *Essential Articles for the Study of Alexander Pope* (Hamden, Connecticut: Archon Books, 1968), ed. by Maynard Mack, p. 811.
5) *The Dunciad*, B, ii. 331-6. 이 작품으로부터의 인용은 다음 판에서 임: *The Dunciad*, Vol. V. of *The Twickenham Edition*, ed. James Sutherland (London: Methuen, 1943).

Glitt'ring with ice here hoary hills are seen,
 There painted vallies of eternal green,
 In cold December fragrant chaplets blow,
 And heavy harvests nod beneath the snow.⁶⁾

*The Dunciad*에 산재해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은, 신고전주의의 대표적 시인 자신도 기괴한 환상과 광기스런 불합리에 대한 기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고전주의 시대에 *The Dunciad*와 같은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Dunciad*에는 이와 같이 기괴하고 불합리한 환상이 난무하고 있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현실인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Pope의 풍자의 대상은 추상적인 우둔이나 저열성 보다도 당시 London시에 존재하고 있던 실제 인물들이다. 따라서 실제 인물들의 이름과 London시의 여러 실제 거리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작품에 사실감과 현실성을 준다고 봐야 할 것이다. *The Dunciad A*, 즉 1729년 판에는 Martinus Scriblerus에 의한 서문(prolegomena)이 붙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시의 action, 또는 fable, 즉 얘기 줄거리는 우둔의 여신(Dulness)의 왕좌를 시중, 특히 시장터로부터 상류사회로 옮기는 일이다.⁷⁾ 따라서 우둔의 여신과 그 추종자들의 활동무대는 London시이며 그 시간도 역사상에 실제하는 어느 날인 것처럼 보인다.⁸⁾ Aubrey Williams는 우둔자들(dunces)의 이동경로가 London 시장취임식일(the Lord Mayor's Day)에 행하는 축하행렬의 경로와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지도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⁹⁾ 그러나 이와 같이 현실적인 배경과 무대에서 행하는 우둔자들의 활동은, 방뇨 경기, 시궁창에 뛰어들기, 고함 지르기 등,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것들이다. 우둔자들의 한 사람인 당시의 비평가, John Dennis도 그 부자연성과 비현실성을 다음과 같이 공격하고 있다:

But what probability is there in Pope's rhapsody? What probability in the games which take up a third part of the piece? Is it not monstrous to imagine any thing like that in the master street of a populous city; a street eternally crowded with carriages, carts, coaches, chairs, and men passing in the greatest hurry about private and publick affairs?¹⁰⁾

그러나 *The Dunciad*의 비현실성과 불합리성은 Pope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된 효과일

6) *The Dunciad*, B, i, 73-78.

7) *The Dunciad*, p. 51.

...the Action of the Dunciad is the Removal of the Imperial seat of Dulness from the City to the polite world; as that of the *Aeneid* is the Removal of the empire of Troy to *Latium*. 여기서 말하는 the polite world는 일반적으로 Westminster의 궁정을 지칭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닌듯하다. Pope가 왕을 위시한 궁정인들을 교양 있는 인간으로 본 것 같지는 않다.

8) *The Dunciad A*, i, 83~84행 ('Twas on the day, when Thorold, rich and grave, / Like Cimon triumph'd, both on land and wave:)과 그 각주에 의하면 우둔의 왕의 즉위식이 행해진 때는 London 시장인 George Thorold경이 취임 축하 행사를 한 날의 밤, 즉 1720년 11월의 둘째 토요일 밤이 된다.

9) Aubrey L. Williams, *Pope's Dunciad: A Study of its Meaning* (London: Methuen & Co., 1955), p. 35.

10) *The Critical Works of John Dennis*, ed. Edward Niles Hooker, Vol. ii, p. 362. Quoted by James Sutherland, *A Preface to Eighteenth-Century Poetry*, p. 155.

것이다. Pope는 현실과 비현실을 결합시킴으로써 꿈과 같은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낸 것이다. Scriblerus도 말하듯이 이 작품은 하나의 우화(allegory)이지 사실적 묘사가 아니다.¹¹⁾ Pope는 우둔자들의 사상을 우화적인 상징으로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앞서 인용된 Scriblerus의 해설에도 불구하고 *The Dunciad*의 줄거리는 별 것이 없고, 특히 주인공의 action은 거의 없다고 여러 비평가들이 발표 당시로부터 지적해 오고 있다.¹²⁾ 그러나 이 작품에서 뚜렷한 줄거리나 명확한 세부 사항을 찾으려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접근방법일 것이다. 이 작품의 세계는 환상과 꿈의 세계이며, Pope의 의도는 이런 세계를 상징으로 하여 우둔자들에게 관한 진실을 폭로하려는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꿈의 세계는 일찌기 우둔의 여신의 옥좌가 자리하고 있는 가난과 시의 동굴(the Cave of Poverty and Poetry)의 묘사로부터 시작한다. 이곳은 사람의 눈에 잘 안 띄는 허술하고 아주 작은 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

(의사 Monroe가 자기를 퇴치하려함을 보고
비웃으면서 광기가 그 왕좌를 고수하는 곳,
그 대문 위에 위대하신 Cibber의 애비의 손이 빛은
그의 골빈 현제들의 동상이 서 있는 곳, 이곳의 울타리 근처에
속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독방이 있으니
이것이 가난과 시의 동굴이다.
허무에서 생겨나는 음악의 상징인
날카롭고 공허한 바람이 황량한 구석에 고향친다.)

Close to those walls where Folly holds her throne,
And laughs to think Monroe would take her down,
Where o'er the gates, by his fam'd father's hand
Great Cibber's brazen, brainless brothers stand;
One Cell there is, conceal'd from vulgar eye,
The Cave of Poverty and Poetry.
Keen, hollow winds howl thro' the bleak recess,
Emblem of Music caus'd by Emptiness.¹³⁾

독방(cell)이나 동굴(cave)과 같은 단어는 결코 넓은 곳이란 인상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뒤따르는 설명을 보면 이곳이 아주 넓은 공간이라는 인상을 준다. 여기에서 시인들이 괴물이 되어 빠져 나와서 시내를 놀라게 하고, 온갖 저열한 저서가 출판되고 Grubstreet의 싸구려 문인들이 생겨난다(37-44행). 또한 여기에서 우둔의 여신은 구름에 가리운 채 장엄하게 빛나고 네가지 미덕이 호위병으로 여신의 왕좌를 떠받들고(46-47행), 온갖 불합리한 현상과 세상이 펼쳐진다(55-78행). 작은 방이나 동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꿈의 환상이다. 환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둔의 여신은 그녀의 신

11) *The Dunciad*, p. 50.

12) 예컨대 John E. Sitter, *The Poetry of Pope's Dunciad*(Minneapolis: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1971), pp. 6-7 참조. Sitter는 이 작품의 action이 모호한 이유는 이것이 mock-heroic의 장르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13) *The Dunciad* B, i, 29-36.

비스러운 자리에서 여러 우둔한 문인들을 살펴 보면서 기뻐하나 특히 주인공인 계관사인 Cibber를 보고 황홀해 한다. 아마도 그녀는 우둔의 여신이기는 하나 신이기 때문에 좁은 동굴 속에서도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는지 모른다. 좌우간 Cibber가 자기 책에 불을 붙이자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달려와 불을 끄고 Cibber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 :

(여신은 자기의 성스러운 저택에서 받들도록 그에게 명령한다.
그는 매우 즐거이 그곳에 들어가 자기집임을 인정한다.
그같이 정령들도 이 땅 위의 행로가 끝나면
승천하여 그곳이 자기들의 본향임을 인식한다.
위대하신 어머니는 그 어느 잠담의 모임이나
자신의 길드회관보다 이곳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
이곳에 그녀의 아편이 있었고, 이곳에서 올빼미를 길렀다.
그리고 이곳에 바보들의 제왕의 자리를 두기로 계획했다.)

She bids him wait her to her sacred Dome:
Well pleas'd he enter'd, and confess'd his home.
So Spirits ending their terrestrial race,
Ascend, and recognize their Native Place,
This the Great Mother dearer held than all
The clubs of Quidnuncs, or her own Guild-hall:
Here stood her Opium, here she nurs'd her Owls,
And here she plann'd th' Imperial seat of Fools.¹⁴⁾

이 sacred Dome은 서두의 the Cave of Poverty and Poetry와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매우 모호하다. "...one of these Goddesses (*Dulness* and *Poverty*) had taken up her abode with the other,..."라는 Scriblerus의 해설이나¹⁵⁾, *the Dunciad* A, 222행의 주석에 따른다면 같은 장소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논리적 연결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많은 독자는 다음과 같은 Sitter의 주석에 동감을 느낄 것이다.

Pope has made the connection between the Cave and the Dome rather unclear. In a note to the line "She bids him wait her to her sacred Dome"(for which see *Twickenham Edition*, V, 89-90), Pope equates the two. But Cibber(or Theobald) is first seen *in* the Cave and then conducted to the Dome within the narrative of the poem itself. For this reason I regard them as separate places and discuss them as such.¹⁶⁾

우둔의 여신의 거처에 관하여 더욱 불분명한 것은 구체적인 가로명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확히 London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앞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1743년 판에서는 Bedlam 정신병원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1729년 판에는 Tower of London 근처에 있는 고물시장인 Rag-fair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

14) *The Dunciad* B,i, 265-272.

15) *The Dunciad*, p. 50.

16) John E. Sitter의 상계서, p. 122.

을 후에 Bedlam 근처로 변경한 이유는 주인공이 Theobald로부터 Colly Cibber로 바뀔 때 따라 Cibber의 아버지가 조각한 광인상이 있는 근처로 옮김으로써 Dulness와 Cibber의 근접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그들의 우둔이 정신이상과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일 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여하튼 간에 그 위치는 여전히 모호하다. 1743년 판에 주석을 붙인 Warburton은 이것이 Bedlam 근처에 있는 어느 사립학원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이 학교에서 Bedlam에 교수를 공급한다는 Warburton의 주석에 입각하여 the Cave of Poverty and Poetry는 Bedlam 근처에 있던 Simon College라고 추측한 Sutherland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는 Warburton의 반어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Bedlam에 교수를 공급한다는 것은 정신 이상자를 만들어낸다는 뜻임이 분명한 것이다. Pat Rogers도 Sutherland의 추측을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여러 가지 내적 및 외적 증거에 입각하여 Dulness의 거처는 다름아닌 Grub Street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⁸⁾

그러나 *The Dunciad*는 상징적 우화이며 허구이다. 따라서 우둔의 여신의 거처가 정확히 London시의 어느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는 the sacred Dome과 the Cave는 같은 장소인지 아닌지는 큰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도 그런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가 더 의미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의 상징인 우둔의 여신이 상주하는 곳은 어디이며 무엇인가고 물어 본다면 그 답은 매우 간단하고 명백할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둔한 자의 머리와 마음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머리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은 the Cave, 또는 one Cell이라는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우둔한 머리에서 생겨나는 시는 서투른 것이니 틀림없으므로 Poverty and Poetry는 두개의 개념이 아니라 Poor Poetry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⁹⁾ 따라서 이곳으로부터 온갖 저열한 시와 문학이 생겨나는 것이다 :

(여기로부터 찬송하는 Tyburns의 비가의 귀절이,
또 여기에서 Journals, Medleys, Mercuries, Magazines 등의 잡지가,
또 우리의 거룩한 교회 벽을 장식하는 묘비의 거짓 문귀와
신년 송가와 Grub Street의 온갖 족속이 생겨나온다.)

Hence hymning Tyburn's elegiac lines,

17) *The Dunciad* B,i, 33의 One Cell there i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주가 붙어 있다 :

The cell of poor Poetry is here very properly represented as a little *unendowed Hall* in the neighbourhood of the Magnific *College of Bedlam*; and as the surest Seminary to supply those learned walls with Professors. For there cannot be a plainer indication of madness than in men's persisting to starve themselves and offend the public by scribbling.

Escape in Monsters and amaze the town....W[arburton].

[The Cell of Poverty and Poetry, situated in *Dunciad A* in the neighborhood of Rag Fair, was shifted in *1743a* to the neighbourhood of Bedlam. Warburton's reference to 'a little unendowed Hall' is obscure; but, in view of the mention of 'Professors' immediately afterwards, the Hall may perhaps be identified with Sion College, close to Bedlam.]

18) Pat Rogers, *Hacks and Dunces: Pope, Swift and Grub Street* (London: Methuen, 1980), p. 58ff.

19) 물론 Scriblerus의 서문에 의하면 이들은 두 자매 여신으로서 하나는 선천적으로,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The Dunciad*, p. 50). 그러나 매우 반어적인 Scriblerus의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Hence Journals, Medleys, Merc'ries, Magazines:
 Sepulchral Lyes, our holy walls to grace,
 And New-year Odes, and all the Grub-street race.²⁰⁾ (B, i, 41-44)

저열한 작품이 우둔한 머리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은 지혜의 여신, Athena가 Zeus신의 머리에서 태어났다는 비유로 시의 초두에 암시되어 있다:

(아주 옛적에, 인간이 글을 쓰거나 읽기 이전에,
 Pallas여신이 천둥신의 머리에서 튀어 나오기 이전에,
 혼돈과 영원한 밤의 딸, 우둔의 여신이
 그녀의 태초의 권세를 삼라만상에 누리고 있었다.)

In eldest time, e'er mortals writ or read,
 E'er Pallas issu'd from the Thund'rer's head,
 Dulness o'er all possess'd her ancient right,
 Daughter of Chaos and eternal Night: (B, i, 9-12)

Athena가 완전히 성장한 상태로 Zeus의 머리에서 태어났듯이, 엉터리 작품도 어리석은 시인의 머리 속에서 완성되어 나오지만, 나오기 전에 그 안에서 싹터서 태아처럼 성장하는 과정을 밟는다. 우둔자의 머리는 황당무계한 시의 모태인 셈이다. 다음 귀절은 모태 속의 성장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여신은 어둡고 심오한 혼돈을 본다.
 거기서 이름없는 무엇인지가 그 근원에서 잠들다가
 너그러운 Jacob이나, 따스한(수지맞는) 삼일째 꿈연이
 지나 연극으로 한 뭉치씩 불러낸다.
 여기에 암시가 생선알처럼 겨우 살아있는 태아로 있고
 새로 태어난 무의미가 처음으로 소리 내기를 배운다.
 반쯤 형성된 구더기들이 운율속에서 정확히 만나서
 시의 운각으로 기어가기를 배운다.)

Here she beholds the Chaos dark and deep,
 Where nameless Somethings in their causes sleep,
 'Till genial Jacob, or a warm Third day,
 Call forth each mass, a Poem, or a Play:
 How hints, like spawn, scarce quick in embryo lie,
 How new-born nonsense first is taught to cry,
 Maggots half-form'd in rhyme exactly meet,
 And learn to crawl upon poetic feet. (B, i, 55-62)

이렇게 생겨나서 자라는 엉터리 시의 씨와 싹은 당연히 온갖 불합리한 비유법과 종류 불명의 문학과 황당무계한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 *The Dunciad* B,i, 41-44, 앞으로 이 작품으로부터의 인용은 각주대신 인용된 귀절 밑에 괄호 안에 표시하기로 함.

(저기에 잡다한 이미지와 어긋난 수사법이,
그리고 엉뚱한 직유가 여신의 마음을 이끈다.
여신은 때거리 지은 비유가 물려 음을 보고
그 어지러운 춤의 미치광질을 기뻐한다.
비극은 희극을 껴안고
소극과 서사시가 뒤섞인 종족을 만들며
시간 자체가 여신의 명령에 정지하고
지역이 자리를 바꾸며 바다가 땅이 됨을 본다.)

There motley Images her fancy strike,
Figures ill pair'd, and Similies unlike.
She sees a Mob of Metaphors advance,
Pleas'd with the madness of the mazy dance:
How Tragedy and Comedy embrace;
How Farce and Epic get a jumbled race;
How Time himself stands still at her command,
Realms shift their place, and Ocean turns to land. (B, i, 65-72)

이와 같이 모든 종류의 불합리하고 저질의 문학이 생겨나는 곳은 어리석은 시인의 머리이며, 이것을 Dulness의 거처, 즉 the Cave로 상징화한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머리는 어느 특정한 바보 시인의 것으로 한정될 수 없고, 우둔의 여신은 모든 우둔한 시인의 머리 속에 거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Cibber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우둔한 시인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특히 the Cave는 Cibber의 머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Dulness의 Dome에 들어 가자 그곳이 자기의 집임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the Cave와 sacred Dome은 동일한 곳이다. 그것은 Dome에서 여신이 보여주는 행적이 the Cave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거의 같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여신의 모든 이적을 보여준다.
산문은 부풀어서 시가 되고 시는 헤메이다 산문이 된다.
제멋대로의 생각이 때로는 우연히 의미를 찾다가도
때로는 이성에 대한 기억을 몽땅 저버린다.)

Here to her Chosen all her works she shews;
Prose swell'd to verse, verse loit'ring into prose:
How random thoughts now meaning chance to find,
Now leave all memory of sense behind: (B, i, 273-276)

앞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곳에서 온갖 괴물이 생겨난다. 그래서 여신은 Cibber의 “괴물을 길러내는 가슴(monster-breeding breast)” 속에 자기의 모습이 가장 완전히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107-8행). 또 Cibber가 필사적으로 작품을 써 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의 묘사에서 그의 머리가 영터리 작품의 모태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인공은 저주하면서 저녁도 못먹은 채 앉아서
그의 신과 주사위와 운명을 욕했다.)

그리고는 펜을 깨물다가 땅바닥에 내던지고
 광막한 심연같은 이생과 저생각에 빠져든다.
 의미를 찾으려 빠져들었으나 거기엔 바닥이 없었다.
 그러나 극도의 절망 속에서 쓰고 계속 몸부림쳤다.
 그의 들레에는 많은 태아와 유산이 널려 있었다.
 그것은 장차 송가로 되다 만 것과 파기된 연극이며,
 갈지자처럼 깨어진 머리의 틈새에서 새어나온
 흐르는 남과 같은 경거망동한 무의미이며
 어리석음이 광기에 날개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우둔한 열기의 열매이며 두뇌의 실패작들이었다.)

Swearing and supperless the Hero sate,
 Blasphem'd his Gods, the Dice, and damn'd his Fate.
 Then gnaw'd his pen, then dash'd it on the ground,
 Sinking from thought to thought, a vast profound!
 Plung'd for his sense, but found no bottom there,
 Yet wrote and flounder'd on, in mere despair.
 Round him much Embryo, much Abortion lay,
 Much future Ode, and abdicated Play;
 Nonsense precipitate, like running Lead,
 That slip'd thro' Cracks and Zig-zags of the Head;
 All that on Folly Frenzy could beget,
 Fruits of dull Heat, and Sooterkins of Wit. (B, i, 115-126)

우둔한 시인의 머리에서 태어나는 것은 태아 상태로 유산되는 것이거나, 더 자라서 나오는 것이거나 마찬가지로 불합리하고 괴상망측한 작품으로서 모두 실패작들이다. 이런 미치광이 작품이 나오는 이유는 위에 인용된 귀절에 있는 Nonsense precipitate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다. 즉 둔한 시인의 머리, 또는 마음 속은 무의미(nonsense)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성(sense, reason)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둔한 생각이 때로는 우연히 의미를 찾기도 하고(B, i, 275), 마음의 어둠 속에 이성의 빛이 반쯤 스며들기도 한다(B, iii, 225-226). 우둔한 자의 잘못은 이 이성을 저버리고 불합리와 무의미를 방치하는 것, 또는 이성으로써 환상과 망상을 통제하지 않는 것에 있다. 따라서 무의미는 경거망동하게 설치서 안팎으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둔(dulness)의 양면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우둔은 인간의 마음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충동과 불합리성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인간성과 합리성에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포기이고 게으름이다. 이것은 정신의 정체성(inertia)이다. Martin Price도, "Dulness is less a real being than a projection of the moral inertia of the man who prefers the ease of remaining what he is to the pain of becoming properly human."이라고 말하고 있다.²¹⁾ 이런 상태의 극단은 잠, 즉 수면 상태이다. 또 한편으로 우

21) Martin Price, *To the Palace of Wisdom: Studies in Order and Energy from Dryden to Blake* (Garden City, N.Y.: Doubleday, 1964), p. 225. Quoted by Patricia Meyer Spacks, *An Argument of Images: The Poetry of Alexander Pop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1), p. 93.

둔은 온갖 불합리한 충동과 환상의 발동에서 오는 활동성과 에너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Bentley의 이름으로 Pope가 붙인 다음과 같은 각주는 아마도 우둔의 이러한 면을 지적하고 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

...Dulness here is not to be taken contractedly for mere Stupidity, but in the enlarged sense of the word, for all Slowness of Apprehension, Shortness of Sight, or imperfect Sense of things. It includes...Labour, Industry, and some degree of Activity and Boldness: a ruling principle not inert, but turning topsy-turvy the Understanding, and inducing an Anarchy or confused State of Mind.²²⁾

마음의 무질서 상태는 다름아닌 미친 상태이다. 이 우둔의 미친 활동성은 제 2권의 황당무계한 의사영웅시적 경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기타 여러 군데에 마음의 무질서나 광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장면이 산재해 있다. 그 중에서도 Cibber가 꿈 속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환상이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

(갑자기 Gorgon괴물이 썩썩거리고 용이 눈을 부릅뜬다.
그리고 뿔이 열개 달린 악귀와 괴물이 싸우러 달려간다.
지옥이 솟아 오르고 천국이 내려 앉아 땅 위에서 춤춘다.
신과 요물과 괴물, 음악과 노호와 웃음소리,
불과 jugg춤, 싸움과 무도회가 뒤범벅되다가
하나의 큰 화재가 전부를 삼켜버린다.)

All sudden. Gorgons hiss, and Dragons glare,
And ten-horn'd fiends and Giants rush to war.
Hell rises, Heav'n descends, and dance on Earth:
Gods, imps, and monsters, music, rage, and mirth,
A fire, a jugg, a battle, and a ball,
Till one wide conflagration swallows all. (B, iii, 235-240)

이와 같은 해괴망측한 환상을 Cibber에게 보여 주는 것은 그의 정신적인 아버지인 Elkanah Settle의 망령이다. 그는 이에 앞서 다음같이 이 광경을 소개해 주고 있다 :

(그러나 곧 구름이 돌아 오고—아버지는 이렇게 알려 준다 :
“이제 보아라, 우둔의 여신과 그의 자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지를!
자연이 닿지 못하고 예술이 못미치는
순진한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무엇인지들.”)

But soon the cloud return'd—and thus the Sire:
“See now, what Dulness and her sons admire!
See what the charms, that smite the simple heart
Not touch'd by Nature, and not reach'd by Art.” (B, iii, 227-230)

여기서 아버지는 Wordsworth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어린이같은 순진한 마음(simple heart)을 찬양하고 있다. *The Dunciad*의 세계에는 어린이같이 순진난만한

22) *The Dunciad*, p. 270n.

데가 있다.²³⁾ 그러나 이 순진성은 마음의 혼란을 야기하는 미숙한 마음이며 우둔과 같은 것이다. 미숙한 마음은 자연(Nature)의 법칙과 질서를 따르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예술(Art), 즉 인위적 노력에 의하여 자연을 따르도록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훈련과 노력을 피하는 게으름이 우둔의 한 성격이다. 이 게으름때문에 불합리와 광기가 방치되어서 활개를 피게 되며 자연의 법칙에는 있을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생겨나는 것이다 :

(여기에서 자연 법칙에 없는 새 세상이 생겨나서
그 자신의 하늘을 받들고 찬란하게 출현한다 :
또 하나의 달이 새로운 궤도를 달리고
만 유성들이 만 태양 돌레를 회전한다.
숲은 춤추고 강물은 위로 솟아 오르며
고래들은 숲 속에서, 돌고래는 하늘에서 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 세상을 장식하려고
놀랍게도 한 거대한 알이 인류를 만들어 낸다.)

Thence a new world to Nature's laws unknown,
Breaks out refulgent, with a heav'n its own:
Another Cynthia her new journey runs,
And other planets circle other suns.
The forests dance, the rivers upward rise,
Whales sport in woods, and dolphins in the skies;
And last, to give the whole creation grace,
Lo! one vast Egg produces human race. (B, iii, 241-248)

이 피상한 새 세상은 물론 당시의 과장된 연극 무대를 풍자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극은 우둔한 시인의 마음 속에 있는 무질서의 반영인 것이다. 이 장면을 보고 주고 받는 부자간의 대화에서 이점이 명시되어 있다 :

(기쁨이 그의 마음을 채운다, 지각없는 기쁨이,
“어떤 힘이 이러한 경이를 이루었나요?”라고 외친다.
“아들아, 그대가 찾는 것은 그대 속에 있나니라. 찾아봐라,
그러면 이 모든 괴물이 그대 마음 속에 그 모습을 지녔음을 알리라)

Joy fills his soul, joy innocent of thought;
“What pow'r, he cries, what pow'r these wonders wrought?”
“Son; what thou seek'st is in thee! Look, and find
Each Monster meets his likeness in thy mind. (B, iii, 254-257)

모든 괴물, 즉 부자연과 불합리는 우둔한 자의 마음 속에 그 근원이 있다. 우둔의 여신, Dulness는 혼돈(Chaos)과 어둠(Night)의 딸이기 때문에 무질서(Anarchy), 즉 광기를 그 속

23) Emrys Jones도 이점을 지적하고 논평하고 있다. Twentieth Century Views의 Pope편 중 “Pope and Dulness” 참조. 그는 여기에서, “These dunces are, in fact, like unabashed small children ...”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으로 지니고 있으며, 원초적인 무질서의 시대에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시인은 서두에서 이같이 읊고 있다:

(애비처럼 거칠고 어미처럼 음울하며
 힘겹고 무겁고, 바쁘고 대답하고 눈먼
 여신은 원초의 무질서 시대에 마음을 다스렸다.
 늘 옛 제국을 회복하려고 여신은 애쓴다.
 우둔의 여신은 신으로 태어 났으니 죽지 못하는 것이다.)

Gross as her sire, and as her mother grave,
 Laborious, heavy, busy, bold, and blind,
 She rul'd, in native Anarchy, the mind.
 Still her old Empire to restore she tries,
 For, born a Goddess, Dulness never dies. (B, i, 14-18)

여신이 다스리는 영역에 이성이 침범해 오자 여신은 그 영역을 되찾는 방법으로 원래의 무질서 속에 있는 온갖 충동과 환상을 풀어 놓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여기에 우둔의 양면성이 있다. 즉, 우둔은 그 타성과 게으름때문에 무질서의 발호를 방치하는 동시에 불합리와 무의미의 발작으로 인해서 일종의 활력을 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둔(dulness)과 광기(madness)는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모든 불합리와 무의미와 괴물과 광기는 앞에서 보았듯이 가난과 시의 동굴(the Cave)로 상징되는 우둔한 자의 머리 속에 있는 깊은 혼돈에서 싹터서 자라난다. 이것이 우둔한 자의 마음을 무질서 상태로 만들고, 황당무계한 시와 연구 등으로 밖으로 분출한다. 이렇게 생겨난 저열하고 부도덕한 문학은 사회의 모든 품위 있는 문학을 도태하고 궁극적으로 한 사회 전체의 문화와 도덕을 파멸시킨다. 이것이 우둔의 확산 단계이다. 그러나 이 확산은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 우둔은 그 목적을 이루면 원래의 속성인 타성과 나태때문에 모든 육체적·정신적 활동의 정지 상태로 돌아 오게 된다. 이것은 마음의 수축이며, 이 수축의 중점은 잠이다. 그 까닭은, 우둔의 극치는 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인이 서두의 invocation에서, "Say, how the goddess bade Brittaina sleep,"라고 말한 것은 우둔의 여신의 궁극적 목적은 영국 전체를 잠들게 하려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The Dunciad*에서 잠과 이와 관련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제 2권에서의 우자들의 경기는 잠으로 끝나고 있으며, 더욱 현저한 것은 이 시 전체의 활동은 여신의 하품으로 전 영국이 잠에 빠지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The Dunciad*에 있어서의 우둔의 운동(action)은 확산과 수축이라는 양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⁴⁾ 즉 우둔한 한 개인의 머리, 또는 마음 속에 있는 우둔은 환상과 광기의 형태로 그 중심으로부터 확산하여, 한 사회 전체의 문화를 오염시켰다가, 우둔

24) Alvin B. Kernan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도 역시 확산과 수축의 양식(expansion-contraction pattern)이 *The Dunciad*의 핵심적 양식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의 요점은 우둔의 확산은 삶의 수축이라(The spread of dulness is a contraction of life.)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과 수축의 주제는 별개의 것이다. Alvin B. Kernan, "The Dunciad and the Plot of Satire," *Essential Articles for the Study of Alexander Pope*. (Hamden, Connecticut: Archon Books, 1968), p. 800 참조.

의 극치인 잠이라는 형태로 원점으로 수축하여 복귀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확산하거나 소용돌이 형태로 수축하는 이미지를 이 시의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모든 종류의 저속한 작품과 시인들이 피물이 되어 the Cave로부터 빠져나와 온 시중에 퍼져서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서술로 이 시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다(B.i. 37-43). 아마도 확산과 수축의 가장 시각적이고 재미있는 이미지는 제 3 권에서 Settle이 Cibber의 위대함을 설명해 주는 도중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

(남자의 오줌이 그 생명의 근원에
그 모든 물결을 굴러 모았다가 다시 순회시키듯이,
또는 팽이 장난감이 숨쉴 좋은 아이가 회전시킬 때
그 실을 빨아 들였다가 다시 내놓는 것처럼
그와 같이 고대나 현대의 모든 무의미가
그대에게 집중하고 그대로부터 순환하리라.)

As man's Mæanders to the vital spring
Roll all their tides, then back their circles bring;
Or whirligigs, twirl'd round by skilful swain,
Suck the thread in, then yield it out again:
All nonsense thus, of old or modern date,
Shall in thee centre, from thee circulate. (B, iii, 55-60)

우둔의 왕자, Cibber를 중심으로 퍼졌다 모였다 하는 nonsense는 무의미인 동시에 무감각, 즉 잠의 상태로 볼 수 있다. 무의미와 불합리가 퍼져서 얼마 동안 발작을 하면 그 활력을 다 소진하여 정지와 무감각 상태로 변한다. 이것이 하품이나 잠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술 주정꾼이 술에 취해 한참 발광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잠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잠이나 하품의 확산은 우둔의 극치에 달하는 것이고 우둔의 원초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즉 잠의 확산은 우둔으로의 복귀이며 수축이다. 이와 같이 의사영웅적 경기의 광기에 날뛰던 우둔자들은 밀려 오는 잠을 막을 도리없이 또다른 우둔의 극치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

(화란 무역선이 호수에 던지는 것이
처음에는 한 원을 그렸다가 뒤따라 또 하나의 원을 만들 듯이
우둔의 여신이 그 자식들 속에 떨어뜨리는 것이
한 원으로부터 나머지로 같은 동작을 일으켰다.
그래서 한 북판으로부터 끄떡임이 퍼져서
사방으로 자꾸 퍼져 바다같은 온 머리에 이른다.)

As what a Dutchman plumps into the lakes,
One circle first, and then second makes;
What Dulness dropt among her sons imprest
Like motion from one circle to the rest;

So from the mid-most the nutation spreads
Round and more round, o'er all the sea of heads. (B, ii, 405-410)

우둔의 잠이 확산하는 이 모양의 묘사에 사용된 이미지는 Pope가 *An Essay on Man*에서 자기 사랑이 퍼져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데 사용한 것과 거의 같다. 거기에서도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돌에서 원이 사랑으로 퍼져 가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

(자기 사랑은 덕있는 마음을 일깨우는 구실을 할 뿐이다.
작은 돌이 고요한 호수를 움직이는 것처럼 :
중심이 움직이면 한 원이 곧 바로 잇따라서
또 한 원에, 그리고 또 다른 원에 퍼진다.
친구와 어버이와 이웃을 그 사랑은 포용하고
다음에는 나라와, 또 다음에는 모든 인류를 포용한다.
마음의 넘쳐 흐름은 널리, 또 널리
모든 종류의 모든 피조물을 받아 들인다.
한없는 은혜로 축복받아, 땅은 사방에서 미소짓고
하늘은 그의 가슴 속에 하늘의 모습을 본다.)

Self-love but serves the virtuous mind to wake,
As the small pebble stirs the peaceful lake;
The center mov'd, a circle strait succeeds,
Another still, and still another spreads,
Friend, parent, neighbour, first it will embrace,
His country next, and next all human race,
Wide and more wide, th'o'erflowings of the mind
Take ev'ry creature in, of ev'ry kind;
Earth smiles around, with boundless bounty blest,
And Heav'n beholds its image in his breast. (Epistle IV, 363-372)

우둔과 자기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성과 미덕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아의 욕구 충족에만 작용하는 자기 사랑은 어리석음이며 우둔의 소치이다. Pope는 *An Essay on Man*에서 일찌기 이와 같은 극단적인 유아독존주의(solipsism)를 광기라고 개탄한 바 있다(i, 258). 자기 사랑은 욕구 충족을 위한 충동으로서 활력이며 에너지이다. 이것이 이성의 통제없이 맹목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곧 광기의 발작이며 우둔의 에너지인 것이다. 즉 맹목적 자기 사랑과 광기와 우둔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들이 원래 존재하는 곳, 즉 그 원천도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마음 속이다. 이곳으로부터 밖으로 향하여 나갈 때 자기 사랑은 이성의 지도를 받으면, 나 아닌 것에 대한 사랑이 되어 온 인류와 온 세상에 퍼지며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맹목적 자기 사랑은 광기로서 뛰쳐 나가서 온 세상을 교란시키고 난 후 그 기운이 소진되어 잠의 형태, 즉 우둔의 정체 상태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맹목적 자기 사랑, 즉 우둔과 진정한 사랑의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아마도 그 힘의 크기에 있을 것이다. 우둔의 힘은 이성이나 양식, 또는 미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원초적 충동의 힘이기에 때문에 매우 강하며 이성과 덕망을 갖춘 개인의 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전염성이 강하여 한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기 쉽다. 이에 비하여 진정한 사랑의 힘은 아주 미미하여서 어지럽고 부도덕한 세상에 이렇다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덕망있는 사람이 세상을 포용하는 사랑은 그 세상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기보다, 자신의 내부에 주관적인 변화를 일으켜 마음 속의 낙원을 이루는 사랑이다. 이러한 사람에게 온 세상이 미소짓는 것은 그의 마음 속의 낙원의 외부세계에 대한 투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사는 낭만주의 시인들이 구가한 상상력의 승리와 비슷한 데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oleridge가 “Dejection: An Ode”에서 온 세계의 기쁨과 생명의 근원은 마음 속의 기쁨과 생명임을 노래함에 있어 *The Dunciad*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Their life the eddying of her living soul!” 이라고 읊고 있다. 그러나 낭만주의 시인들의 이 생명과 기쁨과 사랑은 슬프게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찬란히 빛나다가 다음 순간에는 사라지고 만다. 여기에 낭만 시인들의 슬픔과 낙심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둔의 존재는 매우 확실하고 그 힘은 매우 강하다. 낭만주의적 시인의 세계는 내부의 주관적 투사로서, 비현실, 또는 초현실적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같은 내부의 투사이면서 우둔의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둔의 힘은 이성이나 양심의 힘보다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전 사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인력으로 모든 인간을 우둔 돌레에 규합시킨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어 아무 저항도 못하고 무생물처럼 우둔에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안으로 당기는 여신의 힘을 느끼는 자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하나의 본능이 사로잡아 데려가 버린다.
아무도 인도받을 필요가 없다. 확실한 인력과
머리의 강한 충동적인 무게에 이끌리니까.
모두 제 자리가 있다. 그것은 모두가 제 중심을 찾고
여신에 매달려 그 돌레에 집결하기 때문이다.
붕붕거리는 벌들도 그들의 검은 여왕벌 돌레에
원에 원을 이루고 것처럼 바삭 모여든 적이 없다.
모여드는 무리들은 움직여 나가면서
의지력 없는 거대한 집단을 휘쓸어 감는다.
이들은 약하게 당겨져도 점점 저항력을 잃고
여신의 돌레에 소용돌이쳐 돌면서 여신의 힘을 인정한다.)

The young, the old, who feel her inward sway,
One instinct seizes, and transports away.
None need a guide, by sure Attraction led,
And strong impulsive gravity of Head:
None want a place, for all their Centre found,
Hung to the Goddess, coher'd around.
Not closer, orb in orb, conglob'd are seen
The buzzing Bees about their dusk Queen.
The gath'ring number, as it moves along,
Involves a vast involuntary throng,

Who gently drawn, and struggling less and less,
Roll in her Vortex, and her pow'r confess. (B, iv, 77-84)

우둔의 여신 둘레에 모이는 이 광경은 물론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이는 운동의 시발점인 ‘내부로의 힘(inward sway)’은 우둔한 자 각자의 마음 속에서 작용하는 우둔의 힘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우둔은 근본적으로 각 개인의 심리 현상, 또는 상태이며, *The Dunciad*의 세계는 우둔자의 주관적인 눈으로 본 황당무계한 세상이다. Pope는 우둔한 자의 시점(point of view)을 빌려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진상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낭만주의 시인이 자기의 상상력으로 보는 세계는 그 상상력의 성취에 따라 명멸하는 것인데 비해서 우둔한 자가 보는 세계는 우둔의 강함과 보편성때문에 확실한 세상이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우둔한 자가 보는 황당무계한 비현실의 세계가 그들의 실상을 더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일상적 현실 뒤에 가리워졌던 실상이 꿈 속에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영상, 즉 꿈의 상징으로 제시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The Dunciad*의 세계는 제 3권은 말할 것도 없이 나머지 부분도 꿈과 같은 세상이다. 이 꿈의 세계의 여러 이미지는 우둔에 관한 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상징이다. 그 중의 하나가 소용돌이 운동이다. 위에 인용된 여러 귀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둔은 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확산과 수축 운동을 한다. 이 확산과 수축 운동의 형태, 즉 파상, 또는 소용돌이 형태는, 잠이나 광기가 확산, 또는 수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당한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나 이것은 혹시 당시의 Newton적 우주관의 희화(parody)일지도 모른다. Pope가 당시의 과학자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 것은 제 4권에 잘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Newton의 천재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며 그의 여러 시행에 나타나 있다. 가령 제 3권에서도 Newton같은 천재를 나무라는 것은 자유이나 제발 Newton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바보들에게 당부하는 귀절이 보인다(II. 215-219). Pope는 모든 천체가 그 인력과 관성의 절묘한 균형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고 운행하는 Newton적 우주의 모습에 몹시 감명받았을 것이다. 이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이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다. 만약 어떤 천체가 제 자리를 떠나서 위나 아래로 자리를 옮긴다면 이 우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주관은 Pope가 *An Essay on Man*에서 피력한 존재의 사슬(chain of being)의 사상과 상통하는 것이며, 유아독존적 인간의 교만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 상태를 Newton적 우주의 파괴와 비슷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

(지구가 균형을 잃고 그 궤도에서 날아가며
유성과 태양이 법도 없이 하늘을 달리게 하고,
지배하는 천사들은 그 영역에서 이탈하며
존재는 존재와, 세계는 세계와 부딪혀 깨지게 하고,
하늘의 모든 기반이 그 중심을 향해 기울고
자연은 하나님의 옥좌 쪽으로 흔들리게 하라.
이 엄청난 질서를 깨트리다니—누구때문에? 너때문에?
교약한 벌레여! 미친것, 교만, 신성모독이로다!)

Let Earth unbalanc'd from her orbit fly,

Planets and Suns run lawless thro' the sky,
 Let ruling Angels from their spheres be hurl'd,
 Being on being wreck'd, and world on world,
 Heav'n's whole foundations to their centre nod,
 And Nature tremble to the throne of God:
 All this dread ORDER break-for whom? for thee?
 Vile worm!-oh Madness, Pride, Impiety! (Epistle I, 251-258)

이 엄청난 질서의 파괴와 이에 따르는 대혼돈을 야기시키는 계기는 만물이 오로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이며, 이것이 곧 광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Pope에 있어서는 우둔과 광기와 교만은 동의어이며 이것들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 이 광기가 발동하면 인간은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버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오르려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혼돈의 시작인 것이다. *An Essay on Man*에서의 철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염려하던 사태가 *The Dunciad*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의 무질서는 주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문인들이 파렴치하게 저속하고 부도덕한 작품을 이 세상에 내보내어 사회를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데서 온다. 이 질서의 파괴 행동이 우둔자들의 여러 황당무계한 행위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우둔한 자들의 이 광기의 활동은 우둔의 여신 둘레에 모여들으므로써 하나의 절정을 이루거니와, 이 모이는 모양이 천체간의 균형이 깨어져서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모양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위에 인용된 두 귀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An Essay on Man*에서나 *The Dunciad*에 있어서나 다 같이 모든 존재가 하나의 중심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그 곳으로 모이는 움직임의 모양이다. 이것은 전자에 있어서는 우주의 질서가 혼란으로 변하는 과정이며, 후자에 있어서는 모든 우둔이 집결하여 원초적 혼돈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우둔의 수축 운동이다. 그러나 이 수축은 우둔의 축소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밀집에 의한 강화인 것이다. 이 우둔의 강화는 결국 우둔의 또 하나의 극단, 즉 잠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 최후의 잠은 우둔의 여신의 하품으로 시작한다:

(여신은 말을 이르려 했으나 하품을 했다. 모든 자연이 끄떡거린다:
 어떤 인간이 신들의 하품에 저항할 수 있겠는가?)

More she had spoke, but yawn'd—All Nature nods:
 What Mortal can resist the Yawn of Gods? (B, iv, 605-606)

우둔의 여신의 궁극적 목표는 시의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녀가 태초에 지배하던 제국을 되찾는 일이다. 그 제국은 혼돈 상태(Chaos)이며, 이것은 외부보다 마음 속의 혼동 상태이다.²⁵⁾ 이제 여신의 하품으로 바야흐로 그 목적이 달성되기 시작한다. 하품과 잠은 외부적 현상이 아니라 각 개인의 내부적 심리 현상이다. 그러나 우둔의 잠이 각 개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자연히 이 세상의 질서의 붕괴, 즉 혼돈이 생기는 것이다. 우둔의 여신은 혼돈(Chaos)과 밤(Night)의 딸이다. 이 혼돈은 모든 법칙과 논리와 양식이 무시되는 상태, 즉 광기의 상태이며, 밤은 모든 이성과 통찰력의 빛이 제거된 마음의 암흑 상태, 즉

25) B, i, ll. 15-16.

잠의 상태이다. 결국 우둔의 여신은 혼돈과 밤의 딸로서, 이 삼자가 하나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우둔과 광기와 잠도 하나의 심리 상태이다. 따라서 우둔의 여신의 궁극적 승리의 장면에는 광기와 잠의 상징인 혼돈과 밤, 또는 어두움의 이미지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다 :

(소용없네 소용없어—만물을 삼키는 시간이
견잡을 수 없이 내린다. 시신도 그 힘에 복종한다.
여신이 온다, 여신이 와! 태초의 밤과 옛날의
혼돈의 새까만 옥좌를 바라.)

(봐라, 그대의 두려운 제국, 혼돈이 복원되었다.
창조를 허무는 그대의 말에 빛은 꺼진다.
거대한 무질서여! 그대 손은 막을 내린다.
그리고 온누리의 어둠은 만물을 물어 버린다.)

In vain, in vain,—the all-composing Hour
Resistless falls: The Muse obeys the Pow'r.
She comes! she comes! the sable Throne behold
Of *Night* Primæval, and of *Chaos* old! (B, iv, 627-630)

Lo! thy dread Empire, Chaos! is restor'd;
Light dies before thy uncreating word:
Thy hand, great Anarch! lets the curtain fall;
And Universal Darkness buries All. (B, iv, 653-656)

*The Dunciad*의 끝을 장식하는 이 귀절은 의사영웅체라는 것이 의심스러운 정도로 엄숙하고 장엄한 말세감, 또는 종말감을 준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무엇이 끝났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볼 만하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다. 끝난 것은 이성과 양식과 교양의 밝은 세계이다. 암흑과 혼돈의 세계는 확고히 남아 있으며 우둔한 인간들은 그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 잠 속에서 또 다른 꿈을 꿀지도 모른다. 우둔한 자들은 애당초부터 허무맹랑한 광기의 꿈을 꾸어 오다가 그 꿈마저 일단 쉬고 있는 것이다. 잠이라는 것은 의식이 없는 것, 즉 무의식 상태이며, 일상 세계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이다. 이 무의식 상태에서 일상세계의 현실을 초월하거나 거부하는 영상, 즉 꿈이 발동한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의 정설이다. 이 불합리한 영상의 덩어리가 *The Dunciad*에서는 잠의 밤(Night)와 늘 공존하는 혼돈(Chaos)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잠과 함께 있는 광기, 즉 꿈이다.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항상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다. 꿈이 오히려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 진실을 암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심리학자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

This, then, is the conclusion at which we arrive: the state of sleep has an ambiguous function. In it the lack of contact with culture makes for the appearance both of our worst *and* of our best; therefore, if we dream, we may be less intelligent, less wise, and less decent, but we may also be

better and wiser than in our waking life.²⁶⁾

물론 어리석은 자들이 꿈에서 지혜와 진실을 볼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Cibber는 제 3권의 전체를 통하여 꿈을 꾸었으나 깨어났을 때는 조금도 변함없는 바보로 남아 있다.²⁷⁾ 그러나 혹시 Pope는 바보들이 잠 속의 꿈에서 더 현명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약간 든다.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Cibber의 어리석고 기괴한 꿈은 거짓 꿈이었다는 각주를 붙인 것이나²⁸⁾, 제일 마지막에 우둔의 여신이 막을 내린다는 비유를 쓴 것, 즉 *The Dunciad*의 세계는 하나의 연극이었다는 암시를 주는 것 등이 미약하나마 바보들의 향상의 가능성을 기대한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26) Erich Fromm, *The Forgotten Language*(New York: Grove Press, Inc., 1951), p. 36.

27) 이점은 David B. Morris도 지적하고 있다. *Alexander Pope: The Genius of Sense*(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4), p. 290. 참조.

28) 제 3권의 최종행은, And through the ivory gate the vision flies이다. 상아의 문을 지나는 꿈은 거짓 꿈이고 뿔의문(horn gate)을 통과하는 것이 진정한 꿈이다.